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진우! 마지막 기회다”

복귀 여부 KIA 첫 공식 언급...긍정 검토

“다시 불성실한 태도 보이면 즉각 퇴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받아들여겠지만 또 그러면 진짜 퇴출시키겠다.”

KIA 구단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복귀의사(본보 11월 22일 22면)를 밝힌 투수 김진우(24·사진)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일단 전력 외로 분류해 놔지만, 본인의 깊은 반성과 하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KIA단장은 13일 “아직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우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훈련을 재개했고,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들었다”며 “우선 구단에 찾아와 사과하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한다면 그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최근 조범현 감독과 김진우의 문제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는데, 일단 만나본 뒤 결정기로 했다”며 “만약 복귀를 받아들인다면 해도 불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가차없이 퇴출조치를

취한다는 게 구단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다만 “김진우가 지금 당장이라도 구단을 찾아와 반성하고, 훈련에 열의를 보인다면 구단에서도 최대한 돕겠다”며 “앞으로 전지훈련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훈련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 경우 감독과 상의를 통해 스프링캠프에도 데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범현 KIA 감독도 ‘사죄와 성실’을 전제로 김진우의 복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우는 전력의 선수”라고 밝힌 조 감독은 “구단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기회도 많이 주고 정말 잘해줬는데, 프로선수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많이 했다”면서 “일단 본인을 만나본 뒤 결정하겠다. 이런 구단에서 그에게 해줄 것은 하나도 없다. 프로인만큼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특히 “팀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를 받아들일 경우 팀 워크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성실히 훈련에 임한다면 그의 재기를 적극 도울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31일 임의탈퇴 처분을 받고 잠적했던 김진우는 지난 5일부터 모교인 광주진흥고에서 내년 시즌 재기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진우는 임의탈퇴 후 1년이 지난 내년 8월 1일부터 정규시즌에 참가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LA 다저스 타자 발데스 KIA 온다

KIA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용병타자 1명과 용병투수 1명의 영입을 추진(본보 5월 23면)중인 가운데 우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용병타자의 영입을 확정했다.

KIA 구단 관계자는 “올 시즌 LA다저스에서 뛴 내야수 윌슨 발데스(29·사진)와 사실상 계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조건의 조율만 남아있는 상태. 늦어도 이달내에 계약을 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스프링캠프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용병투수의 영입과 관련해서는 “투수 스코비를 내보내는 대신 새로운 용병 투수를 영입하겠다. 이미 영입 대상을 물색해 놨다”면서 “코칭 스태프와 상의한 결과, 시즌 막판 스코비의 구위가 급속도로 떨어졌고, 어깨 부상의 기미도 보여 불가피하게 방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입이 결정된 발데스는 2004년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통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으며, 샌디에이고-시애틀을 거쳐 올 시즌 다저스에서 뛰었다.



발데스는 내야 전포지션이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로 주포지션은 유격수다. 올 시즌 41경기에 출전해 무실책을 기록했다. 다만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타율 0.211에 1홈런·20타점으로 상대적으로 방망이는 약하다. 그러나 KIA 코칭스태프는 공을 맞는 재주가 뛰어나고 발도 빨라 한국에서는 타율 3할·20도루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투우타인 발데스는 2006년 트리플A에서 타율 0.297·6홈런·53타점, 26도루를 기록하기도 했다.

발데스의 영입으로 취약점이 유격수 자리를 메우게 된 KIA는 내년 시즌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의 예상 내야진은 장성호(1루수)-김종국(2루수)-발데스(유격수)-이현곤(3루수)이다. 최희섭은 지명타자로 나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 성적만 낸다면 최고 대우”

KIA 김익환 부회장 약속

“성적만 낸다면 한국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KIA에 입단한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서재응(30)이 그룹으로부터 내년 시즌 이후 최고의 몸값 약속을 받았다. 본인의 요구가 아니고,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11일 새벽 귀국한 서재응은 하루 뒤인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그룹 본사를 방문해 김익환 그룹 부회장과 조남홍 KIA 구단 사장을 차례로 만나 입단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익환 부회장은 “마음껏 던져라. 앞으로 돈에 대해서도 걱정하지마라. 성적만 낸다면 최고 대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김 부회장의 약속은 단순한 격려 차원의 ‘빈말’이 아니다.

김 부회장은 KIA 창단 초기 구단 사장을 맡아 야구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김 부회장은 야구단 사장 시절 TV 중계가 없거나, 야구장에 못 갈 경우 ‘실시간 야구 문자 서비스’로 경기를 지켜본 일화도 유명하다.

이날 김 부회장의 ‘최고 대우’ 약속은 계약 당시 돈에 연연하지 않는 서재응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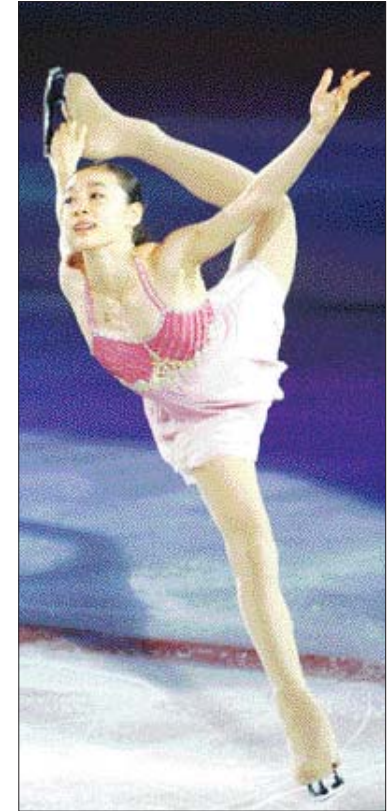
서재응에 대한 특별 대우는 오는 17일 입단식에서도 이어진다. 그동안 신입 선수들의 입단식은 광주 구단사무실에서 이뤄졌지만, 서재응의 입단식은 KIA 자동차 광주공장 내 의전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전실은 광주공장장 등 그룹 고위층 및 임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연아 그랑프리파이널 2연패 도전

실수 줄이면 ‘꿈의 200점’ 이룰 수 있다

15일 쇼트프로그램·16일 프리스케이팅 출전



프리스케이팅에서도 트리플 러츠(공중 3회전)를 싱글로 뛰는 실수를 했지만 멋진 역전 우승으로 아쉬움을 털었다.

스텝연기를 보완해 5차 대회 러시아컵에 나선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더블 악셀(공중 2회전반)을 싱글로 처리하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트리플 러츠 착지 불안으로 감점을 받았다.

5차 대회에서 점프 실수만 없었다면 역대 그랑프리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틀어 여자 선수 최초로 200점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김연아는 그랑프리 파이널을 앞두고 ‘무결점 연기’를 우승 키워드로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13~16일·이탈리아 토리노) 2연패 도전에 나선 김연아(17·군포 수리고·사진)가 ‘꿈의 200점’ 고지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연아는 13일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통해 “장시간 비행에 따른 피로와 시차 적응 문제로 아직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체력은 물론 몸 상태도 별 문제없다”며 “실수를 줄여 다른 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완벽한 연기를 한다면 언제든 200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즌 한층 강화된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점프를 앞세워 심판들에게 가산점을 받았던 김연아지만 몇 차례 실수로 ‘육에 티’를 남겼다.

첫 대회였던 3차 대회 차이냐컵에 나선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트리플-트리플 콤비네이션(연속 공중 3회전)의 두 번째 점프를 싱글로 처리하고, 스텝 연기에서 최저점인 레벨 1을 받으면서 3위를 차지했다.

로 삼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 적응 훈련에 맘을 흘리고 있다.

일단 김연아의 우승 가능성은 ‘동남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를 앞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아사다는 이번 시즌 두 차례 치른 그랑프리 쇼트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하지 못한 정도로 점프 감각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

더구나 러츠 점프에서 잘못된 예지 사용으로 인해 꺾인 기술요소 점수(TES)를 스텝과 스핀을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수(PCS)로 만회하는 험겨운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김연아는 이번 시즌 악셀 점프를 제외한 5가지 점프를 모두 프로그램에 녹여 트리플 점프로 소화하는 다양하고 화려한 연기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연아는 15일 새벽 쇼트프로그램(오후 5시·SBS 생중계)과 16일 새벽 프리스케이팅(오후 5시·SBS 생중계) 연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지존’ 신지애 세계랭킹 8위

지난 주 보다 한계단 올라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을 2년 연속 차지하며 사상 첫 통산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독주체제를 갖춘 신지애(19·하이마트)가 세계랭킹 8위까지 올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회회는 신지애가 주간 세계랭킹에서 종전 9위보다 한 단계 뛴 8위에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주된 활동 무대로 삼지 않고도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선수이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부동의 1위를 지닌 가운데 9위 김미현(30·KTF), 10위 박세리(30·CJ), 11위 장정(27·기업은행), 14위 이지영(22·하이마트), 19위 이선화(21·CJ) 등 모두 6명의 한국 선수가 '톱20'에 올랐다.

한편 신지애는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에게 출전권이 주어지는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 등 2개의 메이저대회를 비롯해 에비앙마스터스, HSBC챔피언스에 출전하는 등 6차례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국내 상금왕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신지애는 내년 12월 LPGA 웰리앙스오픈에 응시, 2009년부터 미국 무대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루선 세계 1위 브롬달 매서운 눈빛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당구 '2007 수원 세계 3루선 월드컵' 한국의 강동공과 32강전에 출전한 3루선 세계 랭킹 1위 스웨덴 토보름 브롬달이 매서운 눈빛으로 당구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다목적체육관 명칭

‘빛고을체육관’으로 결정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시설지구에 신축한 다목적체육관의 이름이 ‘빛고을체육관’으로 결정됐다.

13일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시민과 공무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

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빛고을체육관’으로 결정했다.

이 체육관은 시가 10월에 열린 제88회 전국체전에 대비, 신속한 것으로 지상 3층, 연면적 5천㎡에 배구와 핸드볼, 농구 등의 실내경기장과 1천450석의 관람석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신축 당시 임시 건물명인 ‘영주다목적체육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광주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프·밴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골프 황시제(1년)	골프 황시제(1년)
장 주 3,500	관람권 900 5,200
남관 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 주 8,200	힐 팅 7,400

성원민 (062)351-0095